

재일제주인의 문화정체성과 제주도 경제사회 관계 연구*

한 종 완 (조선대학교) · 임 영 언 (전남대학교)

- I. 문제제기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III. 제주인의 정체성과 고향관의 형성
- IV.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와의 경제사회적 교류 및 활동 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413- 2013S1A5B8A01055017)

 ● 요약 문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제주인의 도일과 공동체 형성, 재일제주인의 고향과 정체성의 관계, 그리고 제주도와의 경제적 교류 관계 등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일본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들 중 ‘재동일본조천리상조회보(1982-1992)’와 재일본제주개발협회가 발행한 ‘애향무한(1991)’에서 1961부터 1990년까지의 재일제주인의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정체성과 경제적 교류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들은 1910년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도일하기 시작하였는데 1923년 이후 제주-오사카 간 정기항로 개설 이후 대량 이주 후 일본 전국적으로 이산되었다. 재일제주인들은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1956년 이후 일찍부터 일본에서 재일제주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제주인 마을회(이민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일제주인들은 마을회를 중심으로 1961년에는 경제단체인 ‘재일본제주개발협회’를 발족시켜 제주도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제주도에 기업 설립과 운영, 투자 및 기술 전수, 기술자 양성, 기부활동, 기관지 발행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셋째, 재일제주인 네트워크의 특징은 마을회 중심의 과소화 된 개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재일본제주개발협회의’라는 과대화 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개인 간 상호부조와 단체조직 간 다차원적인 경제적 교류가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재일제주인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차세대의 정체성의 약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희박 등으로 마을회나 제주개발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모임이나 제주도와의 관계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재일제주인, 고향, 정체성, 마을회, 재일본제주개발협회, 네트워크, 경제교류

I. 문제제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들 중 자신들의 출신 고향에 대한 정체성과 연대감이 강한 동포들을 꼽는다면 아마 재일제주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일제주인들은 어떻게 도일하여 오사카(大阪)에 정착하였고, 일본 전국으로 거주지를 확대해 나갔던 것일까? 1910년 한반도에서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가 강화되면서 처음에는 주로 경제적인 궁핍에 따라 일본으로 도일하는 자가 많았다. 육지와는 달리 제주인들은 강제징용이나 징병보다는 자발적인 노동자로서 돈벌이나 유학을 위해 도일하는 경우가 많았다.¹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온 제주인들은 먼저 오사카 이카이노(大阪猪飼野) 주변지역에 집거지를 형성하며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현재 오사카 이쿠노쿠(大阪生野区)에 제주인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한때는 이곳을 ‘작은 제주(Little JEJU)’부르기도 했다.² 제주인들은 이민 초기 혈연이나 지연을 통해 오사카에 이주하였지만 점차 오사카(大阪)에서 도쿄(東京)로 이동하였으며 도쿄 내에서도 우에노(上野), 아사쿠사(浅草), 닛뽀리(日暮里) 등지에 산재하여 정착하기 시작했다. 도쿄 주변지역은 주로 치바 현(千葉県), 사이다마 현(埼玉県), 가나가와 현(神奈川県) 등으로 생활권을 확대해 나갔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유배지로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흘러들어 왔던 곳으로 ‘섬과 육지’라는 대립적인 발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제주인의 의식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삶속에 육지와는 떨어진 섬의 국민이라는 디아스포라적인 차별의식과 발상들을 싹트게 하였다. 반대로 이를 통해 제주인들은 제주도 풍습이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주인만의 동

1 杉原達·玉井金五編(1986) 『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新評論社, pp.224~227참조.

2 이문웅(1989), 「在日 濟州人 사회에서의 巫俗—大阪 이꾸노 지역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제6집, p.79.

료의식과 연대감을 높여 왔다.

제주인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도일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모아 제주도로 ‘금의환향’하려는 ‘저팬드림(JAPAN Dream)’을 꿈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일본생활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일본정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재일코리안 내에서도 제주인만의 특이한 정체성을 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은 곧 그들의 고향인 제주도로 그들의 의식을 향하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제주인의 동향의식은 처음에는 폐쇄적인 마을단위의 ‘마을회’로부터 점차 생성되어 재일제주인들은 물론이고 일본 귀화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개방적인 형태로 발전해나갔다. 따라서 재일제주인들의 이러한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재일제주인 사회형성의 확대를 가져왔고 오늘날 그들의 고향 제주도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을 고광명(2008, 2011)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유학생, 2세-3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³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인의 이주-고향과 정체성-경제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재일제주인의 도일과 공동체 형성, 고향과 정체성의 재정립에 따른 제주도와외의 경제적 교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제주도와 경제적 교류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본 현지에서 수집된 1956년 이후 ‘재일본조천리상조회’ 회보 자료와 ‘재일본제주개발협회가 발간한 애항무한(1991)을 중심으로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제주인의 경제교류 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고광명(2011), 「재일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교육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P.60.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재일제주인 연구에 있어서 고향이라는 정체성과 경제적 교류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일제주인들이 일본에서 국가적 차원보다는 먼저 그들만의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의 관계 형성 및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문제는 당시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차별문제까지를 포함시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기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라는 지역 차원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문웅(1988, 1989)의 연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은 제주인의 의례생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상제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재일제주인들이 조상제사를 통해서 제주인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재강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주인의 조상제사는 육지와는 달리 모든 자손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조상의 자손임을 재확인하고 친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⁴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김창민(2003)은 제주도의 마을 그 자체가 대표적인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 조직에 의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 그의 연구의 백미는 재일제주인과 지역마을의 관계가

4 이문웅(1988). 「재일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濟州島研究』 제5집, pp.51-58.

5 김창민(2003)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간의 관계 변화: 1930년-2000」 『비교문화연구』 제9집 제2호, p.196.

제주문화에서 마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즉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제주인의 지역 정체성은 일본에서 마을회 중심의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하였고 재일제주인들에게는 친목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일제주인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을회를 조직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모국 제주도의 자기고향에 적극적인 기부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김창민(2003)은 재일제주인의 이러한 기부현상을 제주도과 재일제주인 사이에 후원자 관계, 즉 제주마을과 출신지의 재일제주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이에 대해 안미정(2008)은 재일제주인의 고향기부 행태에 대해 공식적 기부와 비공식적 기부로 분류하였다.⁷ 이 연구에서 공식적 기부란 마을도로, 전기가설, 학교설립 및 장학금 후원, 문화사업 지원 등을 말하며 비공식적 기부는 고향친척과 가족들에게 제사와 별초 명목의 기부금, 생활용품 및 기타 물품의 증여 행위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김희철외(2007)의 재일제주인의 기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방대한 기증실적의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90년대 이후에는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의 갈등과 불신으로 인하여 기부실적의 축소, 기증물과 기증처 등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⁸

오가와(小川伸彦他, 1995)의 재일제주인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인적네트워크가 제주도 기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⁹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구한 고선희(1996)는 재일제주인들이 이주과정에서 지연이나 혈연 네트워크가 중요했지만, 점차 일본 정착과정에서는 도일 후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¹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¹¹

6 앞의 논문, 김창민(2003), pp.195-221.

7 안미정(2008). 「오사카 재일(在日)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耽羅文化』 32호, pp.201-202.

8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法と政策』 第13輯 第1号, p.102.

9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会から「故郷」济州道への寄贈」 『奈良女子大学社会学論集』 2号, p.77.

이와는 반대로 어느 이민사회에서나 동질민족 간의 강한 연대의 배태성(Embeddedness)은 거주국 현지사회로부터 강한 반발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Waldinger, 1995). 우지(Uzzi, 1997)와 그라노베타(Granovetter, 2002)는 마이너리티 집단들이 거주국에서 동질민족에 의한 과도화 된 배태성(over-embeddedness)이나 과소화 된 배태성(under-embeddedness)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네트워크가 집중될 경우 네트워크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¹² 마이너리티 집단 내부의 신뢰와 응집성이 강한 친족네트워크, 그리고 소속집단의 구성원이 이민시기와 모국 출신지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이민집단과는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마이너리티 집단의 네트워크(배태성)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폐쇄적인 집단이 되기 쉽고 너무 약해도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획득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너리티 집단의 이러한 네트워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내부는 물론 다른 이민자들과의 사회적 관계, 즉 이들 양자 사이에 혼합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마이너리티 집단들은 이주국 현지에서 단절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강한 동질적인 민족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다양한 외부집단과 연결하는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위치 확보)이 생존전략 상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¹³

이상과 같이 마이너리티 집단의 생존전략으로서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재일 제주인들은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한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지만 재일코리아 안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생존전략을 구사하여 일본

10 임영언(2006). 『재일코리아인 기업가』. 한국학술정보.

11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関東地方を中心に』. 新華社.

12 Granovetter, Mark(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pp. 481-510.

13 渡辺信(2002). 『経済社会学のすすめ』. 八千代出版, p.144.

내 소수민족 이민집단들 중에서도 성공적인 마이너리티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홉스봄(Eric Hobsbawm, 1983)이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91)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처럼 재일제주인들은 상상의 ‘고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마을회’를 중심으로 응집성이 강한 친족네트워크와 ‘재일본제주개발협회’라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할 수 있었고, 하명생(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공은 그들의 마음 속에 내재된 ‘금의환향’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자본과 재화를 가지고 현실적인 제주도의 ‘고향’으로 향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모국지향 정체성(고향, 애향)강함	모국지향 정체성(고향, 애향)약함
네트워크강함	재일제주인 1세 마을회(이민회)중심 고향 기증기부	마을회(이민회) 형성기
네트워크약함	마을회(이민회) 확대기	재일제주인 차세대(2세-3세) 재일본제주개발협회 중심 교류 기부활동

〈그림 1〉 재일제주인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관계 모형¹⁴

위의 〈그림 1〉은 재일제주인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 1세들은 모국지향 정체성이 강하고 네트워크가 강해 일본 내 형성된 마을회를 중심으로 고향에 기부활동을 전개해 왔다. 둘째, 그러나 재일제주인 간의 네트워크가 강하지만 모국지향 정체성이 약한 경우 제주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을회를 조직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반대로 모국지향 정체성이 강하고 네트워크가 약할 경우

14 이 그림은 기존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재일제주인들은 마을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확대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들이 모국지향의 정체성이 약하고 네트워크도 약할 경우 그라노베타(Granovetter, 2002)가 주장한 ‘약한 연대’의 배태성(Embeddedness)에 의해 네트워크가 가장 광범위하게 확장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일제주인들은 이러한 확대된 네트워크를 통해 거주국 현지에서 다양한 인적자원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면 이 연구가 지향하는 재일제주인의 정체성 형성-네트워크 구축-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기존자료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재일제주인의 정체성과 고향관의 형성

1. 재일제주인의 도일과 오사카 집거지 형성

그러면 제주인들은 언제 그들의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김찬정(1985)에 의하면, 일본 오사카지역 재일코리안 수는 1920년대 약 4,500명에서 1929년에는 6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점차 1935년 경에는 202,311명, 1942년에는 412,748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당시 오사카의 거주하던 재일코리안들은 제주도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1923년에 제주도-오사카를 연결하는 정기연락선인 기미가야마루(君が代丸)가 취항하게 되면서 제주인들이 많이 도일하게 되었고 1924년 시점에서 제주도 출신자 비율이 60%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이 재일제주인들이 집거하고 있는 오사카 이쿠노(生野)는 1923년 이후 제주인들이 모여들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쿠노(生野)의 중심인 이카이노(猪飼野)는 1993년 이전에는 조선시장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후에

15 金贊汀(1985). 『在日コリアン百年史』. 東京:三五館. p.54.

는 코리아타운을 바뀌었다. 조선시장은 민족시장으로서 쓰루하시(鶴橋) 국제시장이 생겨나면서 점차 교통으로 요충지로 접근성이 좋아 이쿠노(生野)의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들 두 시장의 대부분을 재일제주인들이 장악하게 된 것이다.

다음 <표 1>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과 2000년도에 시점에서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보면 해방 전후 재일코리안 가운데 특히 제주도 출신자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지역별 및 연도별 출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경상도와 제주도, 전라도의 비중이 1937년보다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들 지역 출신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1937년도에 경상도, 제주도의 비율이 82.4%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78.2% 정도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들의 출신지역이 여전히 제주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오사카시 출신지역별 재일코리안 수의 변화추이(1937년과 2000년)¹⁶

1937년(재일코리안 전체 약 80만 명)		2000년(재일코리안 전체 약 64만 명)	
본적	오사카 지역(%)	본적	오사카 지역(%)
경상남도	63,989(27.3)	경상남도	36,287(22.6)
경상북도	32,419(13.8)	경상북도	24,579(15.3)
전라남도(제주도포함)	96,674(41.3)	제주도	64,730(40.3)
		전라남도	14,816(9.2)
경기도	4,308(1.8)		
충청남도	7,251(3.1)	충청남도	1,853(1.2)
전라북도	15,114(6.5)	전라북도	1,934(1.2)
충청북도	6,352(2.7)	충청북도	1,779(1.1)
강원도	1,804(0.8)	서울시	5,676(3.5)
황해도	1,703(0.7)	부산시	4,717(2.9)
평안남도	1,788(0.8)	기타지역	4,305(2.7)
평안북도	1,036(0.4)		
함경남도	1,067(0.5)		
함경북도	683(0.3)		
합계	243,188(100)	합계	160,676(100)

그러면 재일제주인들은 해방 이전부터 왜 오사카지역으로 집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고승제(1973)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해방 이전부터 일본인 어업종사자들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었던 유리한 입지에 착안하여 1892년경부터 제주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어업기지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에서 시작된 해운업이 조선 내 육지와와의 연락보다는 일본 대륙과 시모노세키와의 연락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도는 교역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오사카와 깊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¹⁷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주도는 일찍이 경제 교류적인 측면에서 오사카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재일제주인의 정체성 형성과 애향정신의 발현¹⁸

가. 재일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재일제주인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이문웅(1988)은 안(內)과 밖(外)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는 안과 밖을 엄격히 구분하지만 제주도 내에서의 안과 밖은 양자 간에 쉽게 혼합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령 제주인들의 안의 범위가 가족, 친척, 문중, 그리고 넓게는 제주도 그 자체가 때로는 안이 되어 제주사람들이 ‘우리 제주사람들’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제주인들의 정신문화는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강한 응집력으로 나타났다.

16 1937년 통계수치는 『生野区の五十年の歴史と現況』, 2000년도 수치는 『在留外国人統計(平成12年版)』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하였음.

17 高承濟(1973). 『韓國移民史研究』. ソウル: 章文閣, pp.277-280참조.

18 이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체성 분석자료는 “재일본초천리상조회”내용의 칼럼과 기사는 일본 현지조사과정에서 양성중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회보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9 앞의 논문, 이문웅(1988), pp.56-57.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다양한 혈연 및 지연에 의한 친족회, 종친회, 동향인 출신에 의한 상조회 조직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제주인의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인의 안과 밖의 개념은 최대한 확장한다 해도 집안이나 친척의 혈연이 제주도라는 섬에 한정되어 마을회의 회원이나 구성원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제주인들은 육지에서 중시하는 족보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나 친척관계보다는 일본 이주 이전과 이주 후를 연결하는 고향의 출신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재일제주인의 특징은 지연 조직이 재일제주인 안에 출신 마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조직의 특성 때문에 회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했고 마을회 활동이 점차 외연으로 확대되어 재일 1세와 2-3세 간의 소통이 가능했으며 나중에는 출신지의 제주도 방문과 기부나 투자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재일제주인 상조회 회장에 취임한 김관현은 재일제주인의 상호부조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1956년에 비교적 일찍부터 친목회가 결성되어 왔는데 동경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야 제주도 출신 부인들을 중심으로 약 20여명이 아사쿠사 ‘고려상점’에 모여 상조회 결성대회를 가졌다. 고향에서 태어나고 고향에서 같이 지내다가 도일한 1세들의 모임이었기에 서로 주소도 알리고 관혼상제 때는 상호부조하여 나가자는 모임이었다. -중략- 상조모임은 총회, 신년회, 물놀이, 관혼상제 등에 참가하여 상호 접촉을 강화하도록 2-3세들을 설득시켜나가야 한다. 일전에 아타미(熱海)에 살던 고 박전형씨의 아들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계기로 상조회의 청년부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재일제주인들은 친척이라는 혈연과 출신지역이라는 지연도 중시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재일코리안 사회 내 공동체의식도 중시한다. 재일제주인만의 마을정체성도 중시하지만 재일코리안으로서의 단체나 조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에 발행된 ‘재동일본조천리상조회보’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50년대 초기 재일코리안 조직에서 지역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공적으로 회명을 자칭하는 일은 없었다. 조천리의 경우 동향 주부들의 주도로 결성되었으며 개인적인 형태로 동향인의 연결을 소중히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상조회 모임 지역을 더욱 확대시켜나갔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문웅(1988, 19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들은 안과 밖이라는 구분에 의해 자기들만의 모임이라는 지역주의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재일제주인들이 제사와 무속행위로 제주인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주인들을 제주인으로 머무르게 하는 배타적인 ‘사회적 섬(Social Island)’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재일제주인들은 재일코리안들의 이러한 배타성조차도 스스로 끌어안으면서 응집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라노베타(Granovetter, 2002)가 지적한 것처럼 재일제주인들이 과도화되거나 과소화 된 네트워크 구축을 극복하는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을 적절히 활용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재일제주인의 정체성과 ‘마을회’ 중심 공동체²⁰

김창민(2003)은 그의 연구에서 재일제주인들이 마을회 중심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일제주인과 마을관계가 제주문화에서 마을의 위상을 나타냈기 때문

20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2014년 5월 27일 검색). 일본 내 제주인의 마을회는 대표적으로 제주 내 고내, 법환, 조천리 출신들에 의해 조직,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고내와 법환 마을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의 논문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이문웅(1988)의 연구에서도 재일제주인들은 마을단위 향우회를 지적하고 있으며 법환리의 향우회인 건친회(建親會)의 경우 1988년 당시 6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오사카 재일제주인들은 도민회뿐만이 아니고 리민회(里民會), 즉 리별로 조직되어 특히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 오사카에서 제주 무속과 곳의 변용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 고향의 기부에도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주인들이 고향을 떠나 도일하게 되면서 일본이라는 이국의 낯선 땅과 환경 속에서 동향인들과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려는 정신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일제주인의 경우 특히 동향의식과 그들 간의 연대감이 강한 것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이며 어떻게 설명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향 제주도의 전통적인 마을 단위 중심의 생활방식이 이주지 일본에서도 그대로 발현되었다고 보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제주인 김석철은 1985년 ‘마음 속에 살아있는 조천’이라는 칼럼에서 자신의 고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나는 틀림없이 재일코리아인 2세이다. 내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다. 부모의 고향인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2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고 가장 괴로운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향은 내게 그리운 것일까? 고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중략- 내가 생각하는 고향은 피와 같은 자신의 마음 속에 애착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조상이 오래전부터 생활해 온 곳, ‘너는 틀림없이 이 마을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곳이 나의 고향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인들에게 고향은 때로는 태어난 곳이라는 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곳이 고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결성된 제주인 마을회(이민회)의 근원은 역사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열렸던 마을회 풍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재일제주인들은 일본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제주도 생활에서 개인적인 사소한 일이나 마을에 공동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수단으로 ‘마을회’를 열어 공동으로 해결해 왔다. 제주인들은 일본이주 후에도 이러한 마을회를 친목회(이민회)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제주도에서 일상적으로 열

리던 마을회가 일본에서는 제주도 동향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친목회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상호부조의식과 연대의식을 강화시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그러면 재일제주인들의 동향이나 애향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다. 제사문화로 강한 결속력 형성

재일제주인들이 제주도출신이라는 환경적인 요소로서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강한 동류의식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강한 소속감에 의한 연대의식의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오가와(小川伸彦他, 1995)나 그라노벤테타(Granovetter, 2002)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사회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연결망)를 통한 연대감 의식은 단체나 조직의 주기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즉 소속단체나 회원들 간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재일제주인의 경우 이문웅(19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사문화’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들이 주관하는 제사의 특징은 장남계의 부계혈통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손과 사돈, 친한 이웃들이 모두 참석하여 조상제사를 통해 그들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들은 이주지에서 친척 중심의 네트워크를 초월하여 훨씬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했으며 일본에서도 강한 네트워크를 통해 마이너리티 집단으로서의 민족차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1984년 제주도 조천리 출신 김진익의 ‘조천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칼럼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천이라는 이름의 가장 깊은 의미는 어둠을 깨부수고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선구자의 기개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자랑삼아 ‘조천’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는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략—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조천’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다.”

1985년 한운병 상조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고향관이나 상조회에 대한 애착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제가 상조회장이 된 것은 우리 고향의 우수한 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조국을 찾기 위하여 활약하신 선인들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배들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상조회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상조회 일을 맡게 된 것은 이러한 우리 선열들의 정신을 후대에 까지 전달해야한다는 사명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들은 제주도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으며 고향관은 출신지보다는 제주도의 피와 그들 주변인 상호간의 인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습합문화로서 ‘조선절’ 건립과 정체성 유지

어느 사회를 가든 이민자집단들은 그것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그들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단체나 종교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세계의 대표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의 경우, 이주지에서 화교 디아스포라는 사당,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교회,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회당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 그곳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집단들은 상호부조와 연대의식,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호 존재를 확인하는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마이너리티 집단의 타운화도 이러한 현상의 일종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재일제주인의 생활을 생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이문웅(1988)은 왜 일본에서

제주인들이 ‘조선절’을 번창시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제주도가 원래 무속의 고향으로 바다생활이라는 예기치 못한 생활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생활의 지혜가 무속형식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러한 제주도의 생태학적 조건이 일본에서도 제주인들에게 무속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게 만들었으며 이코마산 시기산(生駒山(信貴山)) 자락에 수많은 조선절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재일제주인들은 1923년 경 일본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통해 일본에서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자 집거지역인 이쿠노쿠와 가까운 이코마산지(生駒山地)에 조선절(한국절)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사카지역에서 유리한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그들은 자본을 가지고 오사카지역에 많은 ‘조선절’을 건립하였다. 1960년 중반 경 재일제주인들은 오사카지역에 이미 40-50개의 한국절을 세웠다고 한다.²² 1980년경에는 조선절이 65개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소유주의 출신지도 대부분이 제주도였고 경남이 10여명, 기타지역이 3명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²³

재일제주인들이 이렇게 많은 조선절을 세우게 된 것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무속신앙이 강했으며 이주지 일본에서도 제주도 무속의 굿판을 현지에서도 그대로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절이 불교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절은 일본의 불교문화와 조선의 무속이 습합되면서 ‘조선절의 굿’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사카에 정착한 재일제주인들은 일본의 불교문화 속에서 굿판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이를 절충하는 형식의 ‘조선절’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절은 재일제주인의 조상숭배를 위한 모지관리와 무속신앙의 의례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21 앞의 논문, 이문웅(1988), p.55.

22 高承濟(1973). 『韓國移民史研究』. ソウル：章文閣, p.275 참조.

23 앞의 논문, 이문웅(1989), p.84.

이상과 같이 재일제주인들은 독특한 제사문화와 조선절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 강화, 유지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재일제주인들이 제사문화의 하나로 오사카에서 조선절을 건립한 것은 그들 친척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기 소속을 확인시켜주고 친족관계를 유지·강화시키는 정신적인 정체감 형성의 메카니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IV.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와의 경제사회적 교류 및 활동 분석

1. 재일제주인의 마을회 설립과 고향기부 활동

그러면 재일제주인들이 마을회, 종친회나 상조회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제주도와의 경제적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주도 특별자치시의 발표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2007년까지 재일제주인의 공식기증 금액은 281억 원 달한다.²⁴ 안미정(2008)은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기부행위를 공식적 기부로 비공식적 기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비공식적인 기부에 해당되는 것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 3>은 ‘재동일본조천리상조회’에서 30년간 실시한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천리마을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상조회는 1956년 부인회의 주도로 창립되어 고향출신 및 제주도 고향에 기부와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상조회는 1970년대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하여 한때 회원이 200명을 초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기존회원의 감소로 청년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차세대의 정체성 약화로 인한 조직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상조회 청년부를 대상으로 강연회와 한국어교실을 개설하여 차세대를 위한

24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郷의 보람』. 해동인쇄사. 에서 합산한 금액을 가리킨.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2〉 재일제주인 상조회 30년 주년 주요사업 내용(1956년~1986년)²⁵

연도	주요 사업 내용
1956년	김봉인여사 중심의 부인들 주도로 상조회 결성, 창립대회 아사쿠사 고려상점, 초대회장 원병건씨 추대
1959년	일본 오무라수용소 고향출신에게 위문품 전달
1966년	제주도 고향에 소방차 기증
1968년	제주도 조천리 전기가설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성금 기부
1974년	명칭 ‘재동일본조천리상조회’ 로 개칭, 45세대 149명 물놀이 참가
1975년	물놀이 1박 2일 50세대 191명 참가, 본회기 센다이 고상협씨 기증
1976년	청년부 창설대회, 청년 24명 참가, 물놀이 1박2일 58세대 208명 참가
1978년	물놀이 1박2일 온천여행 103명 참가, 청년부 송년회
1980년	물놀이 1박2일 온천여행 130명 참가, 청년부 송년회
1981년	청년부 제1회 강연회 개최
1982년	상조회 회보 제1호 발행, 청년회 국어교실 개강식 및 제2회 강연회
1983년	청년부 제3회 강연회, 회원실태조사
1984년	청년부 제9회 송년회 30명 참가
1985년	청년부 제10회 송년회 39명 참가
1986년	회보 7호 발행, 청년부 골프대회 12명 참가, 본회 결성 30주년 물놀이

이와 같이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마을회나 친목회, 조선절을 중심으로 제주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고향에 대한 애郷심을 발휘하여 제주고 향의 기부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투자로 눈길을 돌렸다. 가령 그들은 제주도 고향에서 필요한 많은 기부금과 물품을 보내주었고 조천리 상조회만 하더라도 조 천리에 소방차 기증, 초등학교 교육관련 물품제공, 마을 도로정비와 전기가설, 가로등 설치 등 제주인을 위한 생활 인프라정비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 총동창회 창립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애郷정신이 강한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1세대로 하여금 제

25 이 표는 1986년 10월 1일 발행된 ‘재동일본조천리상조회보’를 근거로 필자작성. 상세한 내용은 본 회보를 참조하기 바람.

주도 고향에 대한 대규모투자와 감귤산업조성으로 발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재일제주인 차세대의 정체성의 약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 희박 등으로 친목회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으며 제주도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일본제주개발협회’ 창립과 제주발전 공헌

여기에서는 ‘재일본제주개발협회(이하 ‘협회’로 통일)’가 발간한 애향무한(1991)을 중심으로 1961년부터 1990년까지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일본제주개발협회는 재일본제주도출신자들만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1961년 2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협회의 사업 목적은 제주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 설립과 운영, 투자 및 기술알선, 기술자 양성, 기부활동, 기관지 발행 등이었다.

협회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언론 및 기관지 발행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1969년 ‘협회뉴스’ 창간이고 또 하나는 1964년 12월 창간한 기관지 ‘한라산’이었다. 협회뉴스는 이후 1982년 ‘제주개발협회신보’로 개명하여 발행되어 왔다.²⁶ 협회는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해왔다.

먼저 협회는 제주도에서의 기업의 설립과 운영측면에서 1962년 6월에 ‘제주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1962년부터 제1차 향토방문단과 제주도 방일시찰단을 일본에 초청하였다. 1963년에는 제주도에 감귤묘목 17,000그루와 제주대학교에 도서 118권 기증, 모국 식량난 지원금으로 36만 엔을 기부하였다. 특히 제주도에 감귤묘목

26 협회가 발행한 기관지 ‘협회뉴스’와 ‘한라산’은 재일제주인들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연구는 지면상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이후 발행된 재일제주인 관련 기관지나 잡지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을 기부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주도 농업시찰단, 제주도 산업 방일 시찰단, 제주도 산업개발 기술연수생, 감귤산업진흥 및 농업기술연수생 등을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감귤산업의 진흥을 적극 지원하였다.²⁷

또한 협회는 1975년 차세대 청년들을 위한 모국추석성모단, 1978년 향토학교 개교 등을 통해 재일제주인 2-3세대의 모국방문과 정체성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협회는 창립 이후 해마다 계속해서 제주도 지역출신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을 적극 초청하여 재일제주인과의 교류를 확대해나갔다. 1987년부터는 제주도 출신 유학생과의 교류회를 추진하여 장학금이나 일자리 알선 등 유학생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표 3〉 재일본제주개발협회의 제주도와외의 기부 및 교류 현황(1961~1990년)²⁹

연도	제주도 기부 및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96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25일 창립대회, 고원일 이사장 고향개발 자료수집과 실태조사, 제주시 건설기금 기탁, 제주시 동부두-비행장간 도로포장 착공, 제주도에 무선단파 전화개통
196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향토방문단 제주도 방문, 개발기금, 의료기구, 현미경 등 기증 • 제주상사주식회사 창립총회, 제주오현고야구단선수단 시모노세키 방문 • 전남순천 수해이재민 구제의연금 33,000엔 전달 • 제주-서귀포 간 횡단 도로 기공식, 농촌진흥청 제주시시험장 발족, 한림-대정 간 산간노선 개통, 제주관광호텔 기공
196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대표방일친선시찰 • 제주 고향에 사쿠라 및 감귤 묘목 17,000그루, 제주대학에 도서 118권 기증 • 한규철 복심선수 방한격려 환송회, 본국식량난 구원금 36만 엔 기탁 • 김평진 문화훈장 국민장 수상, 제주재일교포친목회 발족, 제주시민회관 기공 • 제주-부산 간 정기여객선 '도라지호' 취항
196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방문단과 재일교포 좌담회 개최, 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²⁸운동제주연맹에 36,000엔 기증, 김해룡 북제주군교육장에 소학교교육용도서 4권 기증, 기관지 '한라산' 창간호 발행, 제주도 총합개발을 위한 동포기관 및 기업인협회 개최

27 재일제주인의 감귤산업, 제주관광투자, 고향 기부실적 등에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재단(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年足跡』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pp.154-177 참조.

196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산업개발기술연수생 10명 고베 도착, 기술요원 방일 시찰단, 한국 농업연수단 제주도출신 연수생 3명 참가
196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관음사 본산 건설위원회 임원 방일, 제주도민의 밤 개최
196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지사환영회 및 제주도민의 밤 개최, 감귤 묘목 17,000그루 송부, 제주도청에 마이크로버스 기증
196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묘목 46,000그루 송부, 임원 향토방문단 출발
196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묘목 21만 4,000그루 기증, 감귤묘목 10만 7,000그루 기증, 협회뉴스 창간호 발행, 일본인 감귤재배기술자 안내 출발, 44인승 버스 제주도청 기증, 감귤상 제정, 제주-오사카 국제항공로선 취항, 제주도 여성회관 개관
197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묘목 25만 그루 알선 송부, 감귤묘목 18만 그루 알선 송부, 풍수해 구원금 161만원 제주도 지사에 전달, 태풍 비리호 제주도 전역 강타 피해 총액 21억 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총투자규모 906억 원에 달함
197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연수생보증인회, 청년부국어강습회개최, 제주도일주도로 포장공공식, 제주도종합개발5개년계획 1972-1976년
197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신문사와 제주개발협회 공동 제2회 제주도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연수생보증인회, 농기구 기증알선 전달, 상하 추자도를 연결하는 추자교 156미터 완공
197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연수생수료식, 제8차향토방문단 출발, 청년부 볼링대회, 제주도감귤 협회시찰단 초청 도일, 제주도원에기술연수생 초청 도일, 제주도가로수 조성 10년 계획(10년간 11만 6,000그루 식목)
197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 교수 방일시찰단 간담회, 제주도개발연구회의(동경 내 100여명 참가)
197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향토방문단출발,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한국관 마스크트로 제주도상징인 돌하루방 채택
197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향토방문단 출발, 제주상사주식회사 15회 정기총회, 청년추석 성묘단 제주도 출발
197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서울제주도민회 강자량 회장 도일, 제12차 향토방문단 출발, 제주산업시찰단 도일, 제주상사 주식회사 제15기 주주정기총회 개최
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서울제주도민회 강자량 회장 도일, 김인학 제주농촌진흥원장 센다이지구 초청 도일, 김황수 제주도교육감 도일
197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농업기술연수생 도일, 변정일 국회의원 도일, 제주상사주식회사 제17기 주주총회, 제14차 향토방문단출발, 신기옥제주부지사도일, 농업기술연수생 수료
198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정일 국회의원간담회 개최
198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해외교육시찰단 간담회, 현경대국회의원, 강보성국회의원 도일
198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뉴스 개칭하여 '제주개발협회신보' 제28호 발행 • 한국방송공사제주도방송국 초청 도일, 최재영 제주도지사 도일

1983년	• 호텔파크사이드에서 제주상사주식회사 제21기 주주 정기 총회, 제6차항토방문단 출발, 제4회 향토학교 개교
1984년	• 제우회 설립, 제13회전국소년체육대회 본 협회 2억 5,100만원 모금 제주도에 전달, 제주도 총장 도일
1985년	• 고한준 국회의원 도일, 제주도관광협회 일행 도일, 제주상사주식회사 제23기 주주정기총회, 제18차 향토방문단출발, 제5회 하계향토학교개교, 제주도농업시찰단 도일, KBS제주방송국 도일, 장병구 제주도지사도일, 제주개발협회신보 제30호 발행
1986년	• 상임임원 제주도청 방문 화예단지조성 기금 1,300만원 기증, 김두희 제주대학총장 도일
1987년	• 이기민 국회의원 도일, 제주도출신 유학생 교류야유회, 제주상사주식회사 제26기 주주정기총회, 박복찬 제주도지사 도일, 제6회 하계향토학교 개교, 제주도 수해의연금 500만원 제주도지사에 전달, 제주도 감귤시찰단 도일, 제주도 JC에 100만원 기증, 제주개발협회신보 제31호 발행
1988년	• 감귤기술연수생 도일, 강보성, 고세진 국회의원 도일
1989년	• 이군보 제주도지사 도일, 제주상사주식회사 제28기 주주정기총회, 제7회 하계향토학교개교, 제주도출신 유학생 간담회, 제주도농업시찰단 도일, 제주개발협회신보 제32호 발행
1990년	• 청년부 강연회(김경득 변호사), 제주신문사 제주농업좌담회, 제주도 감귤아가씨 도일, 고세진 국회의원 외 4명 도일

3. 재일제주인의 집합장소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제주인들은 ‘재일본제주개발협회’ 창립 이후 모국 제주도에서 제주도 농업시찰단, 제주도 산업 방일 시찰단, 제주도산업개발기술연수

28

http://newsis.com/country/view.htm?ar_id=NISX20121218_0011697412&cID=10804&pID=10800(2014년 6월 2일 검색). 1904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는 세계 각국에 결성되어 비행청소년과의 1:1 결연을 통해 그들의 친구, 형, 부모역할로 도와주거나 이끌어 주는 일을 하고 있음.

29 在日本濟州開發協會(1991). 『愛郷無限—在日本濟州開發協會30年誌』. ケイピー・エス(株), pp.296-315. 위 내용에서 제주도 관련 주요 내용만 필자가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생, 감귤산업진흥 및 농업기술연수생 등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많은 정치가나 학자, 연구자들이 도입하였으며 협회의 정기총회나 모임, 제주상사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유학생 교류 등의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협회가 재일제주인 네트워크의 결절점이자 집합장소로서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장소를 살펴보면 주로 만수산, 동천홍, 다카라호텔, 대성관, 금봉원, 식도원, 호텔파크사이드 등이었다. 재일제주인과 이들 장소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차후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제주인들의 집합장소로서 일본에서 초청이나 모임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만수산, 동천홍, 다카라호텔 등 이었고 1970년대에는 대성관, 금봉원, 식도원, 1980년대에는 호텔파크사이드였다. 이들 장소 역시 재일제주인들의 역사와 함께 조금씩 변모해왔으며 향후 보존적 차원에서 생존자의 생애구술자로나 사료수집 등 향후 구체적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재일제주인들의 경제적 교류측면에서 재일제주인 상조회 30년의 활동과 재일본제주개발협회 30년사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재일제주인 상조회의 형성은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제주인들이 도항하기 시작하였고 1923년 제주-오사카 간 항로개설로 많은 제주인들이 오사카로 모여들었으며 점차 도쿄나 기타 대도시로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제주인들은 강한 제주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1956년에는 '상조회'를 결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모국 출신지를 중심으로 기부활동을 전개하였다.

재일제주인들은 점차 재일제주인만의 모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좀 더 확대된 차원에서 1961년 '재일본제주개발협회'를 발족시키고 1962년 6월에는 제주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제주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재일제주인들이 기존의 마을회 중심의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재일제주인 상호 간의 확대된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라노베타(Granovetter, 2002)가 주장하는 약한 연대의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제주도와 교류 및 기부형태로 본 차이점과 공통점³⁰

재일제주인 마을회(상조회)	재일본제주개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년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제주인의 증가와 1923년 제주-오사카 간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 취항으로 오사카중심 사회에서 도쿄 등 일본 전국적으로 이산. 재일제주인들은 제주도 역사와 제주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정체성 형성. • 재일제주인들은 일찍부터 제주인의 정체성을 근거로 재일제주인 사회의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 형성. • 특히 1956년 이후 마을회(이민회, 상조회)가 형성되어 출신지 중심으로 모국 기부 및 지원활동 전개. • 재일제주인 마을회를 중심으로 출신지역에 대한 소규모 기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일본제주도 출신자들이 1961년 ‘재일본제주개발협회’를 발족시켜 제주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 설립과 운영, 투자 및 기술이전, 기술자 양성, 기부활동, 기관지 발행 등으로 다양한 활동 전개 개시. • 1962년 6월에 제주 투자 및 개발지원을 위한 ‘제주상사주식회사’ 설립. • 제주도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을회(상조회)중심에서 ‘재일본제주개발협회’와 같은 재일제주인 중심의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 • 이를 통한 출신지역에 따라 제주도에 대규모 투자개발 및 기부활동 전개

재일제주인 네트워크의 특징은 마을회 중심의 강한 연대인 과소화 된 네트워크 구축, ‘재일본제주개발협회의’와 같은 대규모 조직을 통한 약한 연대의 과대화 된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재일제주인 개인 간 상호부조와 대규모 조직 간 경제적 교류가 가능했음.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제주인의 도입과 공동체 형성, 재일제주인의 고향과 정체성의 관계, 제주도와의 경제사회적 교류 관계 등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재일제주인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주도와

30 이 표는 논문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관계형성 및 적극적인 경제사회적 교류가 가능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재동일본조친리상조회보(1982-1992)’와 재일본제주개발협회가 발행한 애향무한(1991)에서 1961부터 1990년까지의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정체성과 경제사회적 교류관계에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들은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인에 대한 자부심, 1910년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제주인의 증가와 일본 전국적으로 확대, 이를 바탕으로 1956년 이후 일찍부터 제주인의 정체성을 근거로 한 마을회 중심의 재일제주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둘째, 재일본제주도 출신자들이 1961년 ‘재일본제주개발협회’를 발족시켜 이 조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주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 설립과 운영, 투자 및 기술알선, 기술자 양성, 기부활동, 기관지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셋째, 재일제주인들이 이러한 마을회(이민회)와 재일본제주개발협회와 같은 소규모 조직과 대규모 단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본에서 창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정체성의 존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네트워크의 특징은 과소화 된 마을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과도화 된 ‘재일본제주개발협회의’라는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인 간의 상호부조는 물론이고 단체조직 간의 경제사회적 교류가 가능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재일제주인들은 해방 이후 모국에서도 육지와 떨어진 섬 출신이라는 점, 일본 내에서도 민족차별을 당하는 재일코리안 내의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에 의해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치열한 디아스포라적 삶을 경험한 재일제주인들은 모국 애향정신의 표현과 경제사회적 교류의 장소로서 제주도 고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애향정신은 일본에서의 삶과 제주고향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였고 90년대 초반까지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일코리아인 사회의 고령화와 정체성의 변용은 재일제주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제주인 사회는 재일코리아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차세대의 정체성 약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희박 등으로 마을회와 경제사회적 교류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양측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제주도와의 관계설정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으로부터 사랑받아온 제주도가 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재일제주인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재고되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정체성 형성과 제주도와의 경제적 교류차원에서 195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재일제주인의 초국적 투자와 기부행위에 대해 제주도와 일본현지에서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창민. 2003.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간의 관계 변화:1930-2000.” 『비교문화연구』 제9권 2호.
- 김희철, 진관훈. 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法と政策』 第13輯 第1号.
- 고광명, 진관훈. 2004. “在日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에 관한 연구.” 『濟州島研究』 제26집.
- 고광명. 2006.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14(1).
- 고광명. 2011. “재일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교육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 이문웅. 1988. “재일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濟州島研究』 제5집.
- 이문웅. 1989. “在日 濟州人 사회에서의 巫俗-大阪 이쿠노 지역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6집.
- 임영언. 2006. 『재일코리아 기업가』. 파주: 한국학술정보.
- 안미정. 2008. “오사카 재일(在日)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耽羅文化』 32호.
- 신행철. 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5부』.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재외동포재단. 2008. 『母국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年足跡』. 서울: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2007. 『愛郷의 보람』. 해동인쇄사.
- 小川伸彦·寺岡伸吾. 1995. “在日社会から「故郷」 濟州道への寄贈.” 『奈良女子大学社会学論集』 2号.
- 金贊汀. 1985. 『在日コリアン百年史』. 東京: 三五館.
- 高承濟. 1973. 『韓国移民史研究』. ソウル: 章文閣.
- 桑田芳夫. 1996. 『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 渡辺信. 2002. 『経済社会学のすすめ』. 東京: 八千代出版.
- 在日本濟州開發協會. 1991. 『愛郷無限-在日本濟州開發協會30年誌』. 東京: ケイピー・エス(株).
- 杉原達·玉井金五編. 1986. 『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 新評

論社.

- 高鮮徽, 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関東地方を中心に』, 東京: 新幹社.
- 洪淳晩, 1996, “濟州島人の試練と未來,” 『濟州島』 8号.
- 梁聖宗, 2005, “在日濟州人研究의 現況,” 『在日濟州人の 삶과 제주도』 濟州大學·耽羅文化研究所、社會科學研究所、濟州發展研究院學術세미나).
- 梁聖宗, 2009, “在日濟州人の渡日と暮し—東京における濟州·朝天里民會の事例を中心に,” 『白山人類學12号』 東洋大學·白山人類學研究會.
- 東日本朝天里民會報, 2004, 『在東日本朝天里相助會報 1982~2004』, 在東日本朝天里民會.
- 在東日本朝天里民會, 1990, 『在東日本朝天里民會 會員住所錄: 1984年版·1990年版』, 在東日本朝天里民會.
- 河明生, 2003, 『마이노리티 起業者精神: 在日韓人事例研究』, 東京: 株式會社ITA.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Verso.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pp.481-580.
- Granovetter, Mark, 2002, *A Theoretical Agenda for Economic Sociology*. In the *New Economic Sociology*, edited by Mauro Guillen, Randall Collins, Paula England, and Marshall Meye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Uzzi, Brian, 1997, “The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35-67.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Zainichi JEJU
People's(ZJP) Identity and Economic Relation
in Japan**

HAN JONG WAN · YIM YOUNG EON
(Chosun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migration and attachment, hometown and identity, characteristics of network, economical relation of ZJP with JEJU-DO.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identity and economical relation focusing on ZJP's activity particulars from 1961 to 199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ZJP society was formed with identity based on history of JEJU-DO and self-conceit early since JEJU people's increase and spread of Japanese whole country, 1956 years that center Osaka after 1910 and there was JEJU Village to the center.

Second, ZJP inaugurate Japan JEJU Development Association with JEJU Village in 1961 and started various activity such as JEJU development investigation research, compan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mission, engineer education, donation activity, bronchus issue etc.

Third, ZJP was possible the mutual aid and transnation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that constructed Japan JEJU Development Association center's multidimensional network(over-embeddedness) and JEJU village center's personal network(under-embeddedness).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t is expected JEJU village and Japan JEJU development association center's economical activity of the past are reduced greatly by weakness of next generation identity and overcome plan that reach should be prepared.

Key Words : Zainichi JEJU People's(ZJP), Hometown, JEJU Village, Identity, Japan JEJU Development Association, Network, Economical Relation.

■ 논문접수일: 2014. 8. 31. 심사완료일: 2014. 10. 14. 게재확정일: 2014. 10. 20.

■ 필자 소개 : **한종완** -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2001년 중국 난카이대학에서 중국 '근대 협사소설 연구' 로 문학박사. 2002년도 이후 중국문학 관련 연구 수행.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국제문화 및 문화접변에 대한 연구수행 중. 동아인문학회 편집위원. 중국인문학회 기획위원
연구분야: 중국문학, 다문화, 문화접변
이메일주소: jwhan@chosun.ac.kr

임영언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2004년 일본 조치대학에서 '한국 인기업가: 뉴커머의 창업과정과 에스닉 자원' 을 주제로 사회학박사. 2005년도 이후 재일한인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수행. 최근 일계인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과 연구수행 중. 일본문화학회총무이사, 디아스포라 연구 편집위원,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집위원
연구분야: 재일코리안, 일계인디아스포라.
이메일주소: yimye@hanmail.net